



지난주말 모처럼의 외식을 앞둔 鄭承恩씨(23·서울 영등포구 당산동)는 『생선회 먹으러 가자』(아버지) 『갈비를 먹자』(어머니) 『크리한 건 싫다. 국수가 좋겠다』(鄭씨 본인) 『양식이 아니면 안가겠다』(동생)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순식간에 바뀌었다. 백화점 식당가에 서 헤엄쳐 각자 먹고는 한시간 후에 만나자는 얘기도 나왔다. 그래도 그럴수는 없어서 뷔페 식당을 찾고 말았다. 鄭씨 애가다.

세대차이는 식당에서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다. 먹는 것이 성격을 결정하고 사회와 시대 변화까지 규정짓는다는 주장도 있다.

신세대 입맛변화의 두드러진 경향은 밥과 김치 등 전통적인 식단에 이상 연연해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밥, 그것도 파릇파릇한 밥에 국을 먹어야 제대로 식사한 것 같다는 기성세대와 빵이든 우유든 배를 채우기만 하면 된다는 신세대는 자칫하면 「식탁전쟁」을 일으키기도 한다.

입맛할 때 콜라 찾아 젊은 세대가 시부모와 함께 사는 것을 꺼리는 이유중의 하나가 삼시세끼 더운 밥, 차리가 부담스러워서라는 얘기도 있다. 결혼하지 않던 뽕모찌(26·서울 서초구 반포동)는 시부모와 따로 사는 데도 남편에게 밥을 아침·사과·주먹이를 통나 꾸지람을 들었다.

아기를 가져 입맛할 때 먹는 음식도 달라졌다. 예전 입모들은 주로 맵고 신맛을 띠는 북숭아, 연골면, 동치미국물같은 회한 음식을 찾았는데 요즘은 『요즘은 주스 콜라 사이다를 마셔야 입맛이 가라앉는다는 입모가 많구나』. 밥은 못먹겠다면서 피자나 햄버거, 프라이드치킨, 크래프토끼니를 때우는 사람도 있었다.

서울 연인신부인과 金昌奎원장의 말이다. 음식이 흔해지고 사철 못먹는 음식이 없다보니 입맛을 잃는 사람도 많다. 『우리나라 국민화살이 제일 썩어하는 음식이 김치』라는 조사가 나와 기성세대를 놀라게 한 일이 불과 얼마전이다. 어려서부터 김치를 물에 씻어먹다 보니 스프살이 넘어서까지 매운 것을 못먹는 젊은이도 있다.

결기도 수원에 자리잡은 S 전기의 구내식당을 보자. 한식 양식 스테의 세가지를

"밥보다 피자가 더 좋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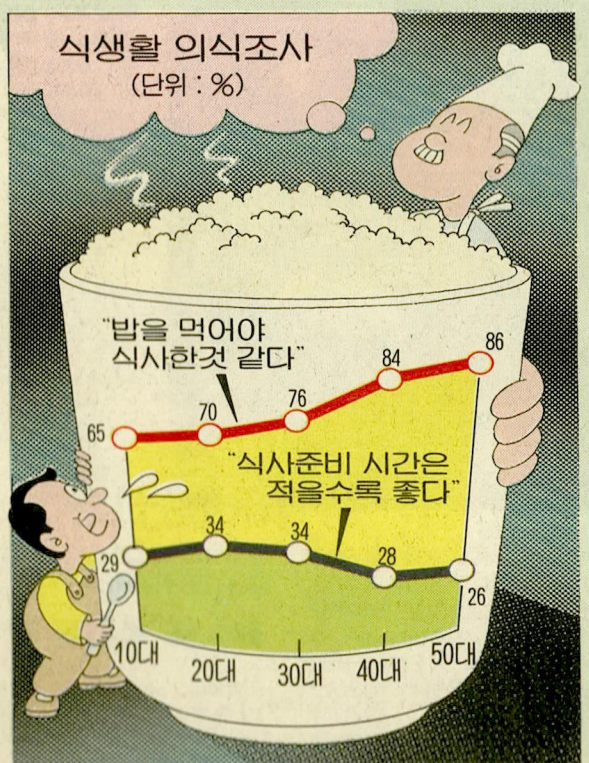
햄버거·닭튀김·라면 등 간이·즉석식품 선호

배식하는데 탕이나 찌개를 주는 한식출판으로 40대 이상, 돈까스 등 양식출판으로 30대 젊은층이, 그리고 국수와 빵 같은 가벼운 음식을 주는 스낵출판은 여성근로자들이 즐겨 들인다.

신세계 단체급식운영팀의 한 관계자는 「신세대와 기성세대의 입맛차가 너무 뚜렷해서 1, 2년 전부터 북수식단을 내놓고 있다」고 말한다. 결국 하고 싶은 음식만 주문, 젊은 애가씨들은 물을 팔아, 먹을지 언정 그대로 남기기 때문이다.

20% 한 끼 이상 굶어 배를 곯아본 일이 없는 신세대는 끼마다 꼭, 제대로, 많이 먹어야 한다는 원초적 문제에 대해서도 회의적이다.

보사부의 90년도 국민영양조사에 따르면 10대의 23.6%, 20대의 19.7%가 하루 한 끼 이상을 굶는다. 시간이 없거나



연령이 높을수록 「아무래도 밥을 먹어야 제대로 식사한 느낌」이라는 응답이 많다.

이는 제일기획이 지난해 5대도시 6천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한국인의 라이프스타일」에서 나타난 것.

20대와 30대 연령층에서 「식사준비와 식

"아침이 빵이로" : 음식량보다 질주

입맛이 없어서 못먹는 사람도 있지만 「한참 일하다 맥을 풀는 것이 싫어서」 식사를 빼기 위해서를 빼놓을 수 없다. (이유도 있다.)

신을 가꾸고 아이를 돌보는 편이 훨씬 좋다는 얘기도 김치볶음밥을 몇 가지 먹는 것은 文씨의 을 사로잡은

진 요인으로 생활수준의 향상과 함께 해가죽화, 아파트 생활 증가, 그리고 여성의 사회진출 확대 등을 꼽을 수 있다.

아내가 교사인 최사원 文모씨(29·D기업)는 점심이 없이는 시간에 쫓겨한 몸으로 식사 준비를 하느라 아이를 땀겨쳐 두느니 김치 한가지로 밥을 먹는 게 낫다」고 했다.

김치나 고추장 된장도 늘 사다 먹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내의 정성이 부족하거나 할 도리를 못한다는 생각은 안해왔다.

사다 먹는 시간에 자

대도시 중심가와 대학가 등 젊은이거리를 파고든 철판 볶음밥집. 김치를 볶았으면 서도 서양식 소스만을 곁들이는 등 신세대 입맛에 맞춰 인기를 끌고 있다.

(安哲民)

과거 신부수업의 필수과정 이었던 요리학원의 강의 내용도 달라졌다. 요리연구가



밥보다 피자가 더 좋아요

햄버거·닭튀김·라면 등 간이·즉석식품 선호



22

입 맛



진 요인으로 생활수준의 향상과 함께 해가 증가하고, 아파트 생활 증가, 그리고 여성의 사회 진출 확대 등을 꼽을 수 있다. 아내가 교사인 회사원 문모씨(29·D기업)는 전직 사립이 없는 시간에 피곤한 몸으로 식사 준비를 하느라 아이를 땀 흘리며 두느니 김치 한가지로 밥을 먹는 게 낫다"고 했다. 김치나 고추장 된장도 늘 사다 먹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내의 정성이 부족하거나 할 도리가 없다는 생각은 안 해봤다고 했다. 사다 먹는 시간에 자

대도시 중심가와 대학가 등 젊은이거리를 파고든 철판 볶음밥집. 김치를 볶았으면 서도 서양식 소스만을 곁들이는 등 신세대 입맛에 맞춰 인기를 끌고 있다. (安哲民)

과거 신부수업의 필수과정이었던 요리학원의 강의 내용도 달라졌다. 요리연구가 吳京和씨는 『과거와 달리 같은 음식이라도 빠르고 간편하게 만드는 방법에 중점을 둔다』고 말했다.



덜은 식품과 패스트푸드다. 컴퓨터를 신망 하아텔의 「나의 솜씨 자랑」에는 라면이 다 행이나 치즈 우유 심지어 초콜릿을 넣어 먹으면 기막히다는 비법이 진지하게 소개되고 있다. 「음식문화의 수수께끼」를 쓴 문화이론학자 마빈 해리스는 「패스트푸드점의 성립은 인간 이 달에 간판들이나 사회적으로 미신화하고 갈파했다. 음식을 만들고 차리고 설거지할 필요없이 즉석에서 먹는다는 것은 사람들의 사고와 행동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기다릴 줄 모르고 조급하며 극단적인 성격은 패스트푸드의 영향이 클 것이다. 동물성 식품 섭취가 늘면서 채식주의가 줄어들고 있고, 끈기 없는 젊은이들은 절충안이다. 「음식문화의 5단계설」을 제기한 具千鶴교수(단국대 농업경제학과)는 우리나라에는 2 단계부터 5 단계까지 한술밥안에 섞여있다고 말한다. 1 단계 원시적 균형단계가 5천년전 농경문화 시작전에 끝난 뒤 50대는 아직도 2 단계(곡 주림단계)에 머물러있다는 것이다. 가정의 음식과 다른 식구의 음식이 다르다는 것, 손님 접대를 과다하게 하는 것이 그 예다. 40대와 30대 후반은 3 단계 안정단계에 속한다. GNP 1천달러, 과일 생선 고기 소비가 늘고 「음식 문화」는 말이 인사로 통한다. 60년대 이후 세대는 식생활을 즐기는 4 단계다. GNP 5천달러, 과일 생선 고기 소비가 늘고 「음식 문화」는 말이 인사로 통한다. 60년대 이후 세대는 식생활을 즐기는 4 단계다. GNP 5천달러, 과일 생선 고기 소비가 늘고 「음식 문화」는 말이 인사로 통한다.

조급한 성격과 관련

“아침이 빵이로” : 음식량보다 질중시

입맛이 없어서 못 먹는 사람도 있지만 ‘한참 일하다 맥을 끊는 것이 싫어서’ ‘산들 빼기’ 그들의 입맛이 이렇게 달라

심을 가꾸고 아이를 돌보는 편이 훨씬 좋다는 얘기다. 김치볶음밥을 몇 가지 음식은 ‘丈草의

로 모는 것은 부담스럽다고 했다. 전통음식대신 신세대의 입맛을 사로잡은 것은 라면 등 인스

『좋은 음식』이 다른 것은 우리 사회가 그만큼 발전했다는 의미다. 다만 우리나라 사람은 우리 땅에서 같이 살아온 우리 음식을 먹는 것이 건강에 더 바람직하다는 것이 具교수의 결론이다. (金順德)

배를 곯아본 일이 없는 신세 대는 까마득, 제대로 많이 먹어야 한다는 원초적 문제에 대해서도 회의적이다. 보사부의 90년도 국민영양조사에 따르면 10대의 23.6%, 20대의 19.7%가 하루 한끼 이상을 굶는다. 시간이 없거나



연령이 높을수록 「아무래도 밥을 먹어야 제대로 식사한 느낌」이라는 응답이 많다. 이는 제일기획이 지난해 5대도시 6천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한국인의 라이프스타일」에서 나타난 것. 20대와 30대 연령층에서 「식사준비와 식사에 드는 시간은 적을수록 좋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나이가 들수록 응답률이 떨어졌다. 요리는 주부가 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전통의식도 나이가 젊을수록 약해지고 있다. 특히 20대에서는 긍정이 29%에 머문 반면, 부정은 43%나 됐다. 고추장 된장을 집에서 담가 먹는 경향도 50대는 80%, 20대는 47%로 나이가 젊을수록 급격히 떨어졌다. 반면 「아침을 빵과 우유로 간단하게 먹는다」는 응답은 늘었다. 생활수준 향상에 따라 전체 응답자의 59%가 「먹는 것은 인생의 즐거움 중 하나」로 여기고 있다. 음식 잘하는 집을 찾다니고 새로운 음식을 남보다 먼저 사먹는 경향은 연령이 낮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요리주부가 하느라 100% 29%